



완공 앞둔 종합체육관

SPACE21 1단계 사업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이 4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와 쌍둥이 빌딩도 올해 완공된다.

(사진=신정인 기자)

설익은 설립 계획 …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미래창조스쿨 설립현황 점검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논란이 무성하던 미래창조스쿨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래창조스쿨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로 설명된다. 이를 통해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미래창조스쿨 산하에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지원처가 속해 이를 지원한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은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행정 거버넌스 개편, 미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오픈랩 공간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 통합

‘미래창조스쿨’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 기존의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지원처가 소속돼 거버넌스 통합이 이뤄진다. ‘미래창조스쿨’은 지난 1월 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학적 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번에 통합된 거버넌스에 따르면 양 캠퍼스 부총장 산하에 미래창조스쿨 원장을 두게 되며, 원장 아래 양 캠퍼스 단장이 자리한다. 각각의 단장 아래에는 오픈랩 운영팀과 학생지원과, 취업지원팀 등이 소속돼 있다.

오픈랩 신설

오픈랩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소통하고 사회진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Creative Space’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팅과 창업교육, 연구를, ‘Communication Space’에서는 취업교육과 진로상담을 지원한다. ‘Activity Space’

는 학生活동과 국제교류를, ‘Share Space’는 지역사회와 글로벌 이슈 해결활동을 지원한다.

교육인증프로그램

미래창조스쿨의 핵심은 교육인증프로그램이다. 미래창조스쿨에서 지정한 교과들 중 해당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미래창조스쿨 이수를 인정하는 문구를 졸업장에 기입해준다. 물론 세부교육 과정은 계속 논의 중이다. 그러나 2016년 8월 경희 미래창조스쿨 설립 추진안에 따르면 필수교육과정 두 단계와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 세 단계를 이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필수교육과정은 Core-Track 1 (Life-Planning)과 Core-Track 2 (Creative Innovation)으로 나눠진다. Core-Track 1 (Life-Planning)에서는 자기성찰과 미래 사회 분석을 위한 기초 학문인 미래학, 문명론, 전환설계, 생태학, 미

학, 인지과학, 도시학 등을 다룬다. 이후 Core-Track 2 (Creative Innovation)에서는 미래의 어떤 분야든 필요한 자질인 소통과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Social Innovation, Design Thinking, Capstone Design, 독립 연구 등을 활용한다.

교육인증을 희망하는 학생은 Core-Track 1과 2 이후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Gap Year와 트랙별 집중과정, 그리고 Independent Study 총 3단계로 구성된다. Gap Year에서는 Core-Track 이수 후 봉사, 여행,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체험한다. 이후 두 단계에서는 취업, 창업, NGO 등으로의 진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트랙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과정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4면으로 이어짐

각급 학생회 재보궐 선거 3월 21일~29일 사이 진행

총학생회 재보궐 선거

김수진 기자 sujin_kim@khu.ac.kr

이달 3월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그리고 경제대학의 재보궐 선거가 시행된다. 서울캠 총학과 경제대학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제캠 총학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며 국제캠의 생명과학대학과 국제대학의 재보궐 선거는 21부터 22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제캠 재보궐 선거 준비기간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후보 추천 및 등록기간은 3

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며, 재보궐 투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행된다. 김건우(전자전파공학 2011) 학자사무국장은 “재보궐 선거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연장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정을 세웠다”며 “새로운 총학생회가 들어서 학내 전반적인 사안의 공백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에서 단선 당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가 낙선했다. 서울캠의 경

우 서울캠 학생회 선거세칙 제 10장 60조에 따라 국제캠과 동일하게 3월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서울캠의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진행되고,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투표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종학 선거 뿐 아니라 단과대학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국제캠의 생명과학대학과 국제대학과 서울캠의 경제대학이 이에 해당되는데, 지난 선거 당시 지원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림

사령

명

〈편집장〉 기호웅(의류디자인학 2012)
〈서울뉴스팀장〉 이수형(경제학 2015)
〈국제뉴스팀장〉 양윤혁(한국어학 2015)

정기자

김은정(러시아어학 2016)
신정인(한국어학 2016)
안선형(프랑스어학 2016)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 :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참조



Newsmaker

번역가 꿈꾸는
최알렉산드리(영어학 2017)

따라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한국어가 익숙해져갈 무렵, 최양은 다른 일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했었던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일이다. 시작은 KBS에서 찍은 영상의 번역이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재밌었던 일을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번역가의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박람회나 이종격투기 선수의 대회 일정동안 통역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최양은 우리학교 재외국민 전형으로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등록금은 무거운 짐이었다. 다행히 한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언어 공부가 좋아 품은 꿈
한국에서 키워나고 싶어

“영어 뿐 아니라 미국 문화까지 배우고 싶다”고 말한 최양은 수줍게 전공들로 짜인 시간표를 내밀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실감이 안 난다면 걱정스런 얼굴을 하다가 예쁜 캠퍼스에서 좋아하는 영어를 배울 생각을 하니 신난다며 얼굴을 풀어기도 했다. “지금은 한국이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젠 한국이 더 익숙한 거 같아요. 가끔 한국어를 못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해요. 얼른 개강해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